

LG화학, 2008년 중국 Top5 목표

LG그룹, 중국지역 본부 설립 가속화 ... LG상사도 공급물량 확대

LG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이 2004년 들어 잇따라 <중국지역본부>를 설립하고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LG그룹과 계열기업들에 따르면, LG전자가 1995년 국내 첫 중국지주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데 이어 2004년 초 LG화학과 LG상사가 중국지역 사업 포스트로 각각 중국지역본부를 신설하고 젊은 임원들을 본부장으로 파견했다.

LG화학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베이징에 중국지역본부를 설립하고 김종팔(50) 전 정보전자소재사업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중국 7개 생산법인과 2개 판매법인의 영업·마케팅 부문을 총괄하게 될 LG화학 중국본부는 앞으로 주요 사업전략 수립, 중국 법인 및 지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 지원, 중국 내 LG화학의 대외 통합창구 역할 등을 맡게 된다.

LG화학은 중국에서 2003년 매출 13억달러에 이어 2004년 16억달러, 2005년에는 22억달러를 매출 목표로 잡았으며 2008년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현지 완결형 사업구조 구축으로 매출 50억달러, 영업이익률 10%를 달성하며 중국 내 Top 5로 도약할 계획이다.

LG상사도 중국 시장확대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2004년 초 베이징에 중국지역본부를 신설하고 2003년까지 석유화학사업부를 맡고 있던 전성진(54) 부사장을 초대본부장으로 선임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다롄 등 4개 현지지사를 관장하는 LG상사 중국본부는 컴퓨터 주변기기, 석유화학 및 철강제품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중국 특화제품 개발을 통해 비즈니스 규모를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진기법을 적용한 파이낸싱 >중국 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기능 >전략제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네트워킹 기능 등을 바탕으로 중국시장 내 자체 수익기반을 구축해 나갈 전략이다.

LG전자는 2003년 말 인사에서 중국지주회사 사장을 노용악 부회장에서 손진방(57) 사장으로 교체하고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한편, LG전선과 LG산전도 중국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나섰다.

양사는 2월22일 서울 아셈타워에서 구자열 LG전선 부회장, 김정만 LG산전 사장, 중국 장쑤성 우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시시 가오신(高新)산업공단 부지 10만여평을 50년 동안 임대키로 하고 적극 개발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정서를 체결했다.

LG전선은 투자협정으로 우시시 신구(新區)에 조성되는 단지에 자동차용 전선 생산법인인 러진전선(樂金電線)을 2만평 규모로 입주시켜 2004년 4월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LG산전도 신구 개발구에 자본금 600만달러 규모의 전력 및 자동화기기 생산, 판매법인을 설립할 방침이다. 약 2만평에 2006년까지 1300만달러가 투자될 신규 법인은 2004년 4월 기공해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2005년 6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Chemical Journal 2004/02/24>